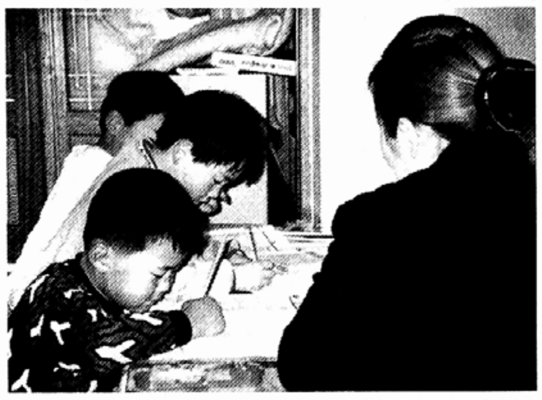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마을'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나온 경북대학교 자원봉사모임 '따사모' 회원들과 함께 보충학습을 하고 있다.

대구 '보리수 마을'

부모떠난 아이들 '힘든 삶'

대구시 진인동 '보리수마을'. 이곳에는 부모로부터 버림 받았거나 가정해체로 부모 곁을 떠난 아이들 12명이 살고 있다.

미혼모가 놓고 간 두 살배기 영아 두람이,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자폐증 아이 민수(가명, 13살), 하루가 멀다하고 엄마 · 아빠가 싸우는 집보다 또래와 함께 모여 사는 이곳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미나(가명, 11살), 부모에게 버려진 종성(가명, 10살).

'체념' 먼저 배워

운동을 좋아하는 종성이는 며칠 전부터 시무룩하다. 학교 친구들이 합기도를 같이 하자고 한껏 바람을 집어넣었지만, 그럴 처지가 못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곳에 온지 3년째. 먹고 잘 수 있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고 사는 이곳 아이들은 학원교습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체념'이다. 종성이처럼 한창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들은 하나 둘씩 포기하며 사는 법을 잘 안다. '보리수 마을'에서 욕심을 부리거나 다툼을 벌이는 아이들은 없다. 이미 '어른'이 돼 버린 '아이들'. 그렇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다.

'보리수마을' 원장 오정 스님은 "여느 가정집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맘껏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마을 살림으로는 감당이 안돼,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과 희망을 잃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고 말한다.

보리수마을은 전적으로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된다. 그러다보니 막내 두람이 분유, 미나 학습지며, 필요한 것은 너무도 많지만 여유가 없다. 자연히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컴퓨터, 속셈학원, 영어 등의 교육프로그램은 엄두도 못 낸다. 그나마 매주 두 번씩 경북대학교 '따사모(따뜻한 사람들의 모음)'란 자원봉사단체에서 보충학습을 시켜주고는 있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오정 스님은 가정의 따스함과 교육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가정결연'을 추진할 생각이다.

'가정결연' 절실

"빨리 커서 결혼해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13살 동민이가 말하는 소망은 이곳 아이들 모두의 꿈이자 씻기지 않을 아픔이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후원과 가정결연이 절실히 필요하다.

후원방법 : 전화 053-981-1552(보리수마을), 계좌 국민은행 644-01-0006-762, 우체국 702217-00270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감천

대구=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1월 23일 (수)

■조계종 자원봉사단 '신년법회'= 불교계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한해의 서원도 세워보고 작년 한해를 반성해보는 법회를 준비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문화교육회관에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스님을 법사로 조계종 자원봉사단 신년법회를 봉행한다. (02)723-5101

1월 24일 (목)

■충주 청소년 상담실 '디지털 동계캠프'=충주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은 26일까지 본원 상담실에서 '제3회 디지털 동계캠프'를 실시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촛불의식, 캠프파이어, 등산 등을 통해 신심을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043)257-0807

1월 25일 (금)

■불자련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눈 덮인 산은 아름답지만 먹이감을 찾기 어려운 고라니, 너구리, 토끼, 꿩 등 야생조수들은 겨울 보내기가 너무 힘들다.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는 지리산 뱀사골에서 '제3회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출발은 오전 7시 서울 조계사. 참가비는 없다. (02)723-6258~9

■좋은 벗들 '남과 북 노래 강좌'= '어젯밤에도 불렀네, 휘파람 휘파람…' 북한 동포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러보자. 멀게만 느껴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노래 가락을 따라 부르며 이해하는 기회!

좋은벗들은 7시 30분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노래' 강좌를 연다.(02)587-8996

■보현불교대 선재이야기=머나먼 구도여행을 떠나는 선재동자. 선재동자의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선재동자는 무슨 꿈을 꿀까.

대전 보현불교대학은 오후 7시 대학 대법당에서 설악산 봉정암 주지 경원스님을 초청해 '선재동자의 꿈 이야기'라는 주제의 법회를 봉행한다. (042)624-6555

1월 26일 (토)

■삼태강산악회 성지순례 등반= 삼태강산악회는 26, 27일 양일 동안 단양 구인사 등을 둘러보는 '성지순례 등산대회'를 마련했다. 26일 저녁 10시 부산 초읍동 삼광사에서 출발해, 구인사의 적멸궁, 조사전 등을 참배하고 여의생, 수리봉, 민봉 등을 차례로 오른다.(011)561-2071

■맑고 향기롭게 '선수련회'= '맑고 향기롭게'는 오후 3시 서울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에서 초심자를 포함한 일반인대상 '선수련회'를 1박 2일로 개최한다. 참선의 묘미를 몸으로 체험할수 있는 기회.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 등의 자세한 지도도 받을수 있다. 참가비는 3만원.(02)741-4696

1월 30일 (수)

■동산반야회 '꽃꽂이 전시회'= "꽃구경 오세요…" 동산반야회 꽃꽂이반을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깜짝 놀랄만한 작품들이 많이 준비돼 있다.

동산반야회가 운영하는 '전통사찰꽃꽂이' 반은 오후 7시 서울 동산대학 법당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꽃꽂이 발표회'를 연다. (02)732-1206

◇동산반야회 꽃꽂이반 실습 장면.

"자원봉사는 끊임없는 실천이죠"

우리 절 우리 신도

대구 불광사 박순자 보살

"정말 너무해요. 흉내 내기도 힘들걸요"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15일 오후 3시. 종무소에 모인 대구 불광사 관음회 회원들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원망 섞인 불만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불만에는 존경심이 깃든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다.

이처럼 회원들의 '원망 아닌 원망'을 받는 주인공은 바로 관음회 회장 박순자(45, 법명 법계수) 보살. 박보살은 경북불교대학 졸업생 동문 55명으로 구성된 관음회가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는데 있어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관음회는 소화하기 힘들 만큼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다. 매주 목요일 경산 백천사회복지관 어르신들 점심공양, 경산 승낙원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품 후원은 물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영남대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등창환자들을 씻어 주는 등.

점심공양 · 환자목욕 등 '무슨일이든'
남편 · 아들도 수계…든든한 후원자

그러자 이렇게 강행군을 독려해온 박 보살에 대해 일부 회원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봉사활동 일정은 집안일 챙길 시간까지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박 보살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회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박보살의 하루 일과와 가족신행이 전해지면서 관음회 회원들의 태도가 몰라보게 바뀌었다.

박 보살은 중장비 사업을 하는 남편 사무실에서 매일 저녁 9시까지 경리업무 등을 보조하고는 저녁 늦게 불광사로 와서, 밤 12시까지 기도시간을 갖는다. 바쁜 일상 중에도 봉사활동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이러한 박보살의 신심은 남편 장근진 거사(51)와 아들 인환군(22)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5일 아들 생일날, 부자가 나란히 수계를 받았고, 인환이는 불광사 주지 돈관 스님의 유발상좌가 됐다. 아들과 남편은 이제 박보살의 든든한 후원자다. 이런 박보살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너나 할 것 없이 더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할망정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회원들 사이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박순자 보살(왼쪽에서 세번째)이 관음회 회원들과 함께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할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관음회 회원 관음 안상분씨(45)씨는 "부처님께서 위신력으로 제자들을 교화하셨듯이, 법계수 보살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5년 동안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해온 박보살에게는 나름대로의 '자원봉사철학'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 걸림 없이 실천하라고 했잖아요.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요. '한순간 잠깐 발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참뜻이 아니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먹는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마음을 비우고 보살행의 길을 가게 해 달라'고 관음기도를 드린다는 박 보살. 박 보살은 작년 제201 특수여단 호국무학사 점안식 회향법회 때 음성공양을 한 인연으로 올해는 군포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작년 6월에 창립한 '대구불교합창단'의 부단장을 맡게 되면서 군부대를 돌면서 '음성공양'에 나선 경험을 살려, 이제는 군포교를 통해 불교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것.

"노래 가사에 감동 받은 불자장병들이 감사편지까지 보내왔어요. 젊은 불자 친구들이 부처님 노래에 귀를 세우고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박 보살은 오늘도 부처님께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발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추천의 말

돈관 스님 대구 불광사주지

96년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 해온 사람이 법계수 박순자 보살이다. 법계수 보살은 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는 물론 경전 고급반을 공부하면서 음성공양을 위한 합창단 부단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믿음을 몸으로 실천해 보이면서 대중간의 화합은 물론 사찰의 대 소사를 직접 챙긴다.

기도정진 역시 다른 불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이다. 철야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자원봉사, 포교 등 불자로서 행을 갖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고 있다. 아들 인환이는 본인의 유발 상좌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 실천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해 다른 불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4천인 불광가족이 자비의 천리향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법계수 회장 가족과 같은 신심 깊은 불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금강불교대학 2546년(2002)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과과정	지역(기수)	교육년한	교과목	교육일시	지원자격	특전
불교학과	기본과정	1년	의례와 수행, 불교입문, 원시불교, 불교문화사, 불전이해, 불교학개론	매주 월, 화 1교시 오후6시 30분~90분간 2교시 오후8시 00분~90분간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수료 후 중급반 진학 자격취득
	중급과정 (서울19기, 부산14기)	1년	반야사상, 법화경(1)(2), 비교종교론, 천태선, 정토사상, 유식사상, 불교사개설, 기신론	매주 목, 금 1교시 오후6시 30분~90분간 2교시 오후8시 00분~90분간	*본교 기본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지격이 있는 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 취득
교법사과정	서울(9기) 부산(9기)	1년	천태종학(1)(2), 화엄학, 밀교사상, 대승불교론, 기신론, 포교방법론, 포교실습	매주 수, 목 1교시 오후6시 30분~90분간 2교시 오후8시 00분~90분간	①본교 중급과정 졸업자 또는 ②불교전문 교육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별도 시험 과정을 통하여 종단내 교법사 선발

학과	모집정원		제출서류	면접일시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료	전형방법	입학식
불교학과	서울 · 부산 각 120명	기본과정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반영함판사진 5매(원서용포함)	*서울 2002년 2월 20일오후 6시 *부산 2002년 2월 23일오후 6시	가 기간 : 2001년 11월 20일~2002년 2월 5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원서료 : 5,000원	가 1차 서류 나 2차 면접	*서울 2002년3월1일 오전 11시 *부산 2002년3월3일 오전 11시
		중급과정	가 기본과정 수료증명서 1통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서울 2002년 2월 19일 오후 6시 *부산 2002년 2월 22일 오후 6시				
교법사과정	서울 · 부산 각 50명		가. 입학원서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1통 다. 반영함판사진5매(원서용포함) 라. 본 대학 중급과정 졸업증명서 1통					

2. 교수진 소개 (불교계 국내 최고의 정상급 교수진)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원의범-동국대명예교수 정태혁-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자-동국대명예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장충식-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조용길-동국대교수
이봉춘-동국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김용표-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김사업-동국대교수
장휘옥-동국대교수 최종석-동국대교수 지창규-동국대교수 김승일-동국대교수 최기표-동국대교수

3. 원서교부처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무과 02-576-6401 신촌성룡사 02-336-2052 봉천동명락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망우동삼룡사 02-496-3839 구로명화사 02-854-0196 인천연화사 032-873-0747 수원용광사 031-255-4105
안양대안사 031-459-3666 성남화성사 031-745-1482 구리금성사 031-563-9364 평택법장사 031-655-9090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무과 051-808-0730 울산정광사 052-277-7100 마산삼학사 055-244-6464 대구대성사 053-651-6108
포항황해사 054-277-3611 김해해성사 055-336-3585

4. 면접장소

◈ 서울 금강불교대학 ◈ 부산 금강불교대학

5. 합격자발표

◈ 2월말 개별통보

6. 대학위치

◈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 (02)576-6401~2 FAX : (02)574-1541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05, 06번 버스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 (051)808-0730,0713 FAX :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